

#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김 갑 선(Kapsoon Kim)\*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II. 연구방법	V. 결론
III. 결과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발표된 질적 연구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발전의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4개 학술지의 2016년까지 총 73편(1.4%)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분석 결과, 1) 질적 연구로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정보행태(39.7%)와 사서업무(20.5%)이다. 2) 연구 목적은 경험의 이해(60.2%)가 우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현황 개선(30.1%)이다. 3) 선호하는 연구방법은 '일반 질적 연구'(26.0%), '무언급'(21.9%), 근거이론(13.6%), 현상학(10.9%), 사례연구(10.9%) 등이다. 4) 연구의 참여자는 사서가 41.0%로 매우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종사자(13.6%)이다. 5) 가장 선호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20.5%), 면담(13.6%), 심층면담과 내부자료(9.5%)이다. 연구 결과, 문헌정보학 분야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여, '느슨한 질적 연구'와 '과학성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가 공존하고 있었다.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자의 인식 고양, 엄격한 연구방법(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타당성과 신뢰성)의 적용이 요구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교과목 설치, 심사자와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지침과 표준 제작이 필요하다.

키워드: 질적 연구, 연구 동향, 문헌정보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in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in Korean LIS from 1970 to 2016. 73 papers(1.4%) were analyzed focusing on publication year, subject areas, research purposes, authors, qualitative methods, research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methods, data analysis methods, and methods of valid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Information behaviour(39.7%) was the most researched topics, followed by librarians work(20.5%), and bibliotherapy & reading education(13.6%). 2)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purpose was for understanding experiences(60.2%) and for improving current state(30.1%). 3) 'Grounded theory'(13.6%) and 'phenomenology'(10.9%), 'case study'(10.9%), were used frequently, while 'non-specified qualitative method' was 26.0% and 'not indicated' was 21.9%. 4) Librarians (41.0%) were the most researched participants, followed by professionals(13.6%). To collect qualitative data, in-depth interview(20.5%), interview(13.6%), and in-depth interview & internal documents(9.5%) were frequently used. There are 'loose qualitative research' group and 'scientific qualitative research' group. LIS researcher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uld consistently make efforts to increase qualitative theory and the philosophical assumptions, and to apply rigorous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ampling, data saturation, validity and reliability). Institutionally, It is to provid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ourse and to develop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LIS qualitative research authors and reviewers.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tren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kapskim@jwu.ac.kr

•논문접수: 2017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2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373-396,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3.373]

## I. 서론

### 1. 연구목적

문헌정보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참신한 연구성과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증가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에 관한 관심과 질적 연구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2년간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축적된 질적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적 연구의 특징은 탐구현상의 본질에 관한 의미와 구조를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탐구현상에 관한 귀납적, 맥락 중심적, 과정 중심적,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연구성과는 현상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무의 문제해결이나 정책개발에 일조할 수 있으며, 이론개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질적 연구를 정의하고 질적 연구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첫째, 연구자의 패러다임적 인식, 둘째, 심층면담, 관찰을 통한 생생한 경험적 자료 수집, 셋째, 분석과 해석을 통한 주제(theme)의 도출, 넷째, 귀납적, 순환적, 창조적, 성찰적 연구 과정, 다섯째, 연구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계별 연구자의 다양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질적 연구논문을 분석하는데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출발점은 어디이며, 그 위상은 어떠한가? 질적 연구논문으로써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며, 어떠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누구를 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질적으로 연구하고 있는가?, 또한, 자신의 질적 연구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과정 중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의 특색과 동향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의 전반적 생산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논문의 현황과 특색은 어떠한가?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 질적 연구논문의 진일보를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2.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의 유용성 논의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질적 연구의 교육과 연구 추세는 우파 진영과 좌파 진영으로 구분

하고 있다(Phillips 2006; Eisenhart and Jurow 2011, 700-702). 우파적 접근은 질적 연구의 ‘사회과학성’ 내지는 ‘과학성’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성에 기반하여 질적 연구의 주관성 극복을 위해 철저하고 엄격한 방법론 고수를 주장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질적 연구의 교육과 연구는 우파적 접근이며 다분히 질적 연구의 ‘과학성’을 강조한다. 그 반대 진영인 좌파적 접근은 포스트모던적이다. 과학성이나 철저한 방법론 고수가 아니라 인간, 문화, 예술로서 질적 연구를 강조하는 아방가르드적 진영이다. 결국 이는 강조점에 따라 ‘학술연구로서의 질적 연구’와 사회의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는 ‘운동’적 관점으로서의 질적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는 것이다. 22년차 국내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직까지는 엄격한 ‘과학성’을 갖춘 질적 연구로 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질적 연구는 1990년대 초중반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연구진들이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주창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대학교 연구자들은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질적 연구를 통해 실사구시의 학문인 문헌정보학의 현장중심성을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귀납적 접근인 질적 연구를 통해서 국외이론의 창의적 극복이 가능하고, 한국적 문헌정보학 이론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질적 연구를 통해 형식적 학술글쓰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학술글쓰기를 구현할 수 있다(이수상 1994). 이러한 주장은 당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았으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감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과 적합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져 왔다. 문헌정보학에서 문화기술연구의 적용성을 제시하였으며(김정근, 이용재 1996; 김정근 1998),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를 통한 일상생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김정근, 장덕현 1999). 또한, 문헌정보학분야 질적 연구의 의의와 발전 방향성을 세부적으로 논하였으며(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장덕현 2001), 정보장애 연구에 있어서 문화기술법의 적용(장덕현 2002),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을 논하였다. 최근에는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이호신 2015),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김갑선 2015)이 논의되었다. 특히, 2005년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의 동향 분석에서 이명희(2005)는 당시까지 생산된 국내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물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좋은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성 극복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기, 연구과정에서의 철저한 관찰 및 조사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설계하기, 다양한 질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기, 자료분석과 해석의 엄밀성을 유지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의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유효한 조언이다.

국외 문헌정보학에서도 질적 연구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질적 연구가 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헌정보학분야의 질적 연구의 적용성에 관한 논의로는 문헌정보학에서의 질적 연구의 적용 (Westbrook 1994; Gorman and Clayton 200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 담론분석(Frohmann 1994), 담론분석을 적용한 질적 면담데이터 분석하기(Talja 1999)가 있다. 또한, 근거이론의 적용(Seldén 2005; Tan 2010), 근거이론과 문화기술지의 조합 적용(Bamkin, Maynard, and Goulding 2016)의 논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헌의 의미 탐구를 위한 일상생활방법론(Ethnomethodology)의 적용(Trace 2016), 실행연구(Action Research)에서의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Cook and Farmer 2011)이 있다. 또한, 정보연구를 위한 현상학의 적용(Budd 2005), 정보문해연구를 위한 현상학의 적용(Forster 2015), 현상학과 현상기술지(phenomenography)의 적용 (Cibangu, and Hepworth 2016)을 들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학회지이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1970년대 창간호에서 최근 2016년까지 발표된 총 5,071편의 논문 중 질적 연구논문으로 선별된 73편(1.4%)의 논문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질적 연구의 특색과 동향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질적 연구논문의 성장, 발전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자 등재학술지인 4개 학회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4개 학술지의 창간호(1권)부터 2016년 4호(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2016;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974-201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84-2016; 정보관리학회지 1985-2016)까지 이며, 창간연도에 따라 최장 47년에서 최소 32년 까지 이다.

질적 연구의 일반적 정의는 참여자로부터 관찰이나 면담 등의 생생한 '경험 자료'를 수집하

여 자료의 분석과 해석과정을 거쳐 ‘주제(theme)’를 구축했는가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나 면담 자료’에 있기 보다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과정을 거쳐 ‘주제(theme)’를 구축했는가의 여부에 있다.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질적 연구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유연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주제(theme)’를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면담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단순 분류하여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본문에 인용한 연구도 질적 연구의 범주로 간주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출현하는 질적 연구유형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 논문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 질적 연구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업적 웹데이터베이스인 디비피아에서 해당 학술지별 권호차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작업으로 검토하였다. 선별작업은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면담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의 국문이나 영문 제목에 ‘질적 연구’임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질적 연구’, ‘질적 접근’, ‘질적 분석’, ‘경험’ 혹은 적용한 특정 질적 연구방법 (예, 근거이론, 현상학 등)을 제시한 논문들이다. 두 번째 단계는 면담자료를 수집하고, 논문 제목에 질적 연구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문이나 영문 주요어(keyword)로 ‘질적 연구’ 관련 용어를 선정한 논문을 선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theme)를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면담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단순 분류하여 참여자의 구술 내용을 본문에 인용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면담자료를 분석한 혼합연구의 선별이다. 논문의 초록,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자로부터 면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논문은 명백한 혼합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질적 연구 논문으로 간주하였다. 즉, 원(原)연구(학위논문 등)가 양적 및 질적 자료를 포함하는 혼합연구이지만 게재된 논문이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에 중점을 둔 논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적 연구로 간주하여 포함하였다.

### 3. 분석준거

질적 연구논문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 준거는 연도별 및 학술지별 생산 추이, ‘질적 연구’의 명시 여부, 연구자 유형,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참여자, 표집방법, 표집크기, 데이터 포화, 연구동의, 자료분석방법, 타당성과 신뢰성, 자료분석시 SW 사용 여부이다. 분석한 모든 자료는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연도별 논문 생산추이는 질적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언제 등장하였으며,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 학술지의 창간 년도에서 최근까지 연도별, 학술지별, 시기별로 질적 논문의 생산 추이를 검토하였다. ‘질적 연구’의 명시 여부는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

를 생산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질적 연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간접적 지표로 간주하였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질적 연구접근이 양적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질적 연구’임을 논문제목이나 부서명, 주요어로 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자와 공동연구자로 구분하였다. 단독연구자의 신분은 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사서, 사서교사, 관련 실무자로 세분하였다. 공동연구는 교수와 교수, 교수와 강사, 교수와 연구원, 교수와 대학원생, 교수와 사서, 교수와 사서교사, 교수와 관련 실무자, 사서와 사서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는 정보행태, 사서업무, 사서직 인식, 독서치료와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경험, 도서관 조직문화, 교수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는 논문의 제목, 초록, 주요어,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핵심주제를 도출한 것이다. ‘정보행태’주제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탐색, 정보추구, 정보소외, 정보이용행태를 탐구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사서업무’ 주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특정 업무에 관한 인식이나 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주제전문서비스, 전자자원 수서업무, 문화프로그램, 지적 장애인서비스, 장서개발업무 경험 등을 포함한다. ‘사서직 인식’ 주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직업사회화, 역할 인식을 탐구한 것이다. ‘도서관 운영’ 주제는 도서관 운영현황이나 조직에 관해 이용자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조직문화’주제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조직문화나 조직몰입 경험에 관한 탐구이다. ‘도서관 이용경험’ 주제는 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교수경험’주제는 문헌정보학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연구목적은 ‘경험 이해’, ‘현황 개선’, ‘이론 개발’로 구분하였다. 연구목적은 대상 논문의 ‘연구 목적’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 ‘경험 이해’ 연구 목적은 탐구 현상에 관한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현황 개선’ 연구목적은 특정 현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도출을 통해 문제 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론 개발’ 연구 목적은 일반적 모형 개발, 이론적 모형, 도구 개발을 시도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위에 언급된 연구목적이 두 가지 정도로 중복된다면 ‘연구 목적’과 ‘결과’ 및 ‘논의’부분을 연관지어 논문의 핵심 목적을 찾아 분류하였다.

적용된 연구방법은 근거이론, 현상학, 사례연구, 문화기술연구, FGI, 질적 다방법, 내용분석, 담화분석, 사고구술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질적 연구’로 표기한 논문은 연구방법을 ‘일반적 질적 연구(non-specified qualitative method)’로 구분하였다. 또한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논문은 ‘무언급’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주(主)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서(교사),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청소년, 노인, 취약·소외집단, 도서관이용자, 여성, 기타 일반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참여자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논문의 연구 목적에 가장 중점이 되는 참여자 집단만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 면담, 심층면담과 내부자료, 심층면담과 내부자료 및 관찰, 심층면담과 관찰, 심층면담과 설문지, 심층면담과 내부자료와 설문지 및 관찰, 내부자료, FGI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부분과 서론 및 본문의 내용에서 자료수집 방법을 검토한 것이다. 참여자 선정에 관한 일차적 표집방법은 의도적(목적적) 표집, 눈덩이표집, 이론적 표집, 다단계 층화로 구분하였다. 참여자 표집의 크기는 다양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의 크기는 1명, 2-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26명-234명으로 구분하였다. 표집의 신뢰성을 위하여 데이터 포화에 근거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고려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참여 동의 여부는 연구참여동의서, 구두동의, 사전 동의, 녹음(녹취) 동의, 서면 동의, 자발 동의로 구분하였다.

자료분석 방법과 자료분석시 SW 이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근거이론, 내용분석, 현상학, 코딩, 문화기술연구, FGI, sense-making method, '무언급'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부분과 서론 및 본문의 내용에서 자료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연구참여자 확인, 동료검증법, 코더간 일치도 검사, 데이터 포화, 삼각검증법, 연구참여자 관여법, 판단중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제별 현황은 질적 연구주제에 따라 선호하는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참여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Ⅲ. 분석 결과

#### 1. 연도별 논문 생산 추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위상은 어떠한가? 한 주제의 발전 경향은 양적 성장세와 질적 평가로 가늠할 수 있다. 성장하고 발전중인 주제라면 양적 성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국내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4개 학회 학술지의 질적 연구의 논문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표 1〉 연도별 논문 생산 추이 및 학술지별 질적 연구 논문 추이

연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계		
	질적 연구	총 논문	%	질적 연구	총 논문	%	질적 연구	총 논문	%	질적 연구	총 논문	%	질적 연구	총 논문	%
2016	3	75		2	72		1	51		0	53		6	251	2.3
2015	2	77		3	74		0	55		1	55		6	261	2.5
2014	1	75		2	71		1	58		3	50		7	254	2.7
2013	1	70		3	75		1	58		1	55		6	258	2.3
2012	1	56		2	75		3	67		4	59		11	257	3.8
2011	0	71		1	71		1	68		0	76		2	286	0.6
2010	3	68		1	65		0	53		4	59		4	245	1.6
소계	11	492	2.2	14	503	2.7	7	410	1.7	9	407	2.2	41	1,812	2.2
2009	2	67		2	86		0	59		2	67		6	279	2.1
2008	3	78		0	89		0	20		0	60		3	247	1.2
2007	1	70		1	89		0	22		0	62		2	243	0.8
2006	1	75		2	75		1	30		0	61		4	241	1.6
2005	1	59		4	74		2	25		0	59		7	217	3.2
2004	0	59		1	78		0	25		0	58		1	220	0.4
2003	0	56		1	65		0	24		1	58		2	203	0.9
2002	0	57		1	63		0	27		0	45		1	191	0.5
2001	0	50		0	63		0	19		0	45		0	177	0
2000	1	37		1	53		0	19		0	49		2	158	1.2
소계	9	608	1.6	13	735	1.7	3	270	1.1	3	564	0.3	28	2,177	1.2
1999	0	35		1	52		0	12		0	32		1	131	0.7
1998	0	50		1	50		0	21		0	25		1	146	0.6
1997	0	42		1	37		-	-		0	24		1	103	0.9
1996	0	25		0	17		-	-		0	21		0	63	0
1995	0	20		0	27		-	-		0	20		0	67	0
1994	1	26		0	16		0	13		0	12		1	67	1.4
1993	0	25		0	15		-	-		0	14		0	54	0
1992	0	21		0	6		-	-		0	14		0	41	0
1991	0	20		0	8		-	-		0	13		0	41	0
1990	0	14		0	7		-	-		0	14		0	35	0
소계	1	278	0.3	3	235	1.2	0	46	0	0	189	0	4	748	0.5
1989	0	20		0	8		-	-		0	11		0	39	0
1988	0	10		0	7		-	-		0	12		0	29	0
1987	0	6		0	8		-	-		0	14		0	28	0
1986	0	6		0	7		-	-		0	13		0	26	0
1985	0	9		0	7		-	-		0	13		0	29	0
1984	0	6		0	9		0	7		0	10		0	32	0
1983	0	5		0	9		-	-					0	14	0
1982	0	5		0	9		-	-					0	14	0
1981	0	8		0	6		0	6					0	20	0
1980	0	5		0	6		0	7					0	18	0
소계	0	80	0	0	76	0	0	20	0	0	73	0	0	249	0
1979	0	6		0	7		-	-					0	13	0
1978	0	7		0	6		0	3					0	16	0
1977	-	-		0	8		-	-					0	8	0
1976	-	-		0	5		-	-					0	5	0
1975	0	4		0	4		-	-					0	8	0
1974	-	-		0	5		0	10					0	15	0
1973	0	5					-	-					0	5	0
1972	0	4					0	6					0	10	0
1971	-*	-											-	-	0
1970	0	5											0	5	0
소계	0	31	0	0	35	0	0	19					0	85	0
총계	21	1,489	1.4	30	1,584	1.8	10	765	1.3	12	1,233	0.9	73	5,071	1.4
%	28.7	29.3		41.6	31.2		13.8	15.0		16.6	24.3		100	100	

-\*: 미간행



1970년대 창간 이래로 4개 학술지는 5,071편을 게재하였다. 그 중 질적 연구논문은 73편이다. 이는 게재된 총 논문의 1.4%에 해당된다.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질적 연구논문은 매우 소수이며,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등장은 90년대 중반기이다.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창간된 1970년 이후 25년이 지난 1994년에 비로소 부산대학교 연구진들에 의해 ‘질적 분석’(김정근, 장덕현 1994) 제목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와 2000년대 초반의 초창기에는 부산대학교 연구자들과 미국에서 질적 연구나 혼합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수행한 미국 박사학위자들이 그들의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타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학습한 국내 문헌정보학 박사학위자들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학위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질적 연구논문은 90년대 0.5%(4편)에서 2000년대는 1.2%(28편)로 한 단계 증가하였다. 2010년대는 연구자 층의 다양화로 질적 연구논문은 2.2%(44편)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는 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는 후발 연구자들이 꾸준히 질적 연구 논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지별로 발표된 질적 연구논문의 생산량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총 1,584편 중 30편(1.8%)으로 약간 우세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총 1,489편 중 21(1.3%)이며, 정보관리학회지는 총 1,233편 중 12편(0.9%)이며,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총 765편 중 10편(1.3%)이다. 중요한 것은 4개 학술지의 질적 연구논문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관리학회지가 2010년대 비약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처음 발표된 질적 연구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 단계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에 대한 질적분석”(김정근 장덕현 1994)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게재된 첫 논문은 “우리나라 시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적현황에 대한 질적 분석: 백두시를 중심으로”(김정근, 김순화 1997)이다.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첫 번째 질적 연구논문은 2003년 미국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풍부한 정보 환경에서 정보와 함께 하는 학습: 인지기술 활용을 중심으로”(정진수 2003)이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2005년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 빈곤”(이제환, 윤유라 2005)을 첫 번째 질적 연구논문으로 게재하였다.

## 2. ‘질적 연구’의 명시 여부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이고 주류적인 연구 접근은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이다. 따라서 양적 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양적 연구임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양적 연구의 최근

논문 제목 추세는 고급통계를 사용하여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임을 논문 제목이나 부서명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논문의 제목(국문·영문 제목, 부서명)이나 주요어(국문·영문 주요어)에 ‘질적 연구’임을 명시했는가의 여부를 연구자의 질적 연구자 정체성이나 질적 연구인식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명시 여부는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자 인식 뿐 아니라 생산된 질적 연구논문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영문 제목에 ‘질적 연구’임을 명시한 논문은 절반 정도인 53.4%(39편)이었다. 이들 논문은 ‘질적 연구’ 관련 제목을 국영문을 포함하여 평균 2개 정도 사용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관련 주요어를 사용한 논문은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41.0%(30편)이다. 이들 논문은 2.9개의 국영문 주요어를 사용하였다.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면, ‘질적 연구’ 관련 국영문 제목을 2000년대에는 1.8개(22편) 사용하였지만, 2010년대는 2.2개(15편)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어로 제기하는 경우는 2000년대에 3.2개(10편)에서 2010년대는 2.8개(20편)로 감소하였다.

학술지별 ‘질적 연구’ 명시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영문 제목에 ‘질적 연구’임을 명시한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63.3%(19편)로 가장 많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45%(11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각 50%(10편), 정보관리학회지가 41.6%(5편) 순이다. 국영문 주요어로 ‘질적 연구’관련어를 제시한 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50%(10편), 정보관리학회지가 41.6%(5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40%(5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33.3%(10편)이다.

또한, 질적 연구논문 중에서 박사학위 관련 논문인가의 여부도 검토하였다. 이는 학위자가 향후 질적 연구 전문연구자로 성장하여 질적 연구물을 생산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질적 연구 주체의 성장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질적 연구논문에서 박사학위 관련 논문은 15.0%(11편)이다. 11편의 박사학위논문 관련 질적 연구논문은 시기적으로 2000년대 7편(63.6%)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4편(36.3%)이다. 질적 연구의 박사학위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6편(54.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4편(36.3%)이 게재되었다.

### 3. 연구자 유형

질적 연구논문을 누가 생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는 단독연구가 64.3%(47

편)로 공동연구의 35.6%(26편)보다 우세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우세한 연구자 유형은 교수 단독연구로 39.7%(29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강사 단독연구(12.3%, 9편), 교수와 사서의 공동연구(9.5%, 7편),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8.2%, 6편), 교수와 연구원의 공동연구(5.4%, 4편) 순이다. 사서의 단독연구와 기타 실무자의 단독연구도 각각 4.1%(3편)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특색을 살펴보면, 2010년대로 진입할수록 단독연구는 34.2%(25편)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교수의 단독연구는 2000년대 16.4%(12편)에서 2010년대 23.2%(17편)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공동연구의 새로운 형태로 교수와 교수의 공동연구가 4.1%(3편)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또한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가 2000년대 1.3%(1편)에서 2010년대 6.8%(5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4. 연구주제

질적 연구로 어떠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는가는 대상 논문의 탐구현상을 분석하여 주제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정보행태’ 주제가 39.7%(29편)로 가장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서업무’(20.5%, 15편), ‘독서치료와 독서교육’(13.6%, 10편), ‘사서직 인식’(10.9%, 8편) 순이었다. 기타 소수 주제는 ‘도서관 운영’(6.8%, 5편), ‘도서관 이용경험’(2.7%, 2편), ‘도서관 조직문화’(2.7%, 2편), ‘교수경험’(1.3%, 1편)이다. 시기별 특색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로 가장 선호하는 주제는 정보행태이다. 정보행태 주제는 2000년대 17.8%(13편)에서 2010년대 21.9%(16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새롭게 등장한 주제는 ‘교수경험’(1.3%, 1편)에 관한 주제이다. ‘사서업무’ 주제는 질적 연구의 초기 주제로 90년대 후반에 등장(2.7%, 2편)하였다. 2000년대에는 해당 논문이 생산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는 주목받는 주제가 되어 17.8%(13편)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서업무’ 주제가 증가한 이유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대두로 다양한 정보서비스 업무가 등장하였고, 기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사서와 사서 업무경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자원 수서업무, 문화프로그램, 지적장애인서비스, 학습만화 인식, 장서개발업무, 수서업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업무,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변화 등이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정보행태 주제는 질적 연구주제로 가장 오래되고 매력적인 주제이다. 특히,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정보소외집단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정보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구관심이었던 우리 사회의 주류 집단에서 비주류집단으로 연구관심을 확대한 것으로 국내 문헌정보학의 연구 주제와 연구대상(연구참여자)의 외연과 내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향후 질적 연구의 탐구주제로 국내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기대된다.

## 5. 연구목적

질적 연구를 왜 수행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 논문의 ‘연구목적’부분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 ‘경험 이해’, ‘현황 개선’, ‘이론 개발’로 도출하였다. ‘경험 이해’의 목적은 질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황 개선’은 특정 현상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 도출을 통해 문제 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황 개선’의 연구목적은 질적 연구성과의 실용적 적용 차원의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개발’은 일반적 모형 개발, 이론적 모형, 도구 개발, 이론 개발과 도출을 시도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론의 개발’은 사실상 모든 질적 연구가 도달하고자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점이 되는 질적 연구목적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우세한 연구목적은 탐구 현상에 관한 ‘경험의 심층적 이해’(60.2%, 44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황 개선’(30.1%, 22편), ‘이론 개발’(9.5%, 7편)이다. 시기별 특색을 살펴보면, ‘경험 이해’는 2000년대 27.3%(20편)에서 2010년대 32.8%(24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의 특색 중의 하나는 실무에 기반한 ‘현황 개선’에 관한 연구목적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황 개선’ 목적은 90년대 5.4%(4편)로 시작되어 2000년대 6.8%(5편), 2010년대 17.8%(13편)로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반면에 ‘이론개발’에 관한 연구 목적은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개발’은 시도하는 연구는 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 6. 연구방법

어떤 질적 연구방법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질적 연구방법은 패러다임에 따라 혹은 연구자에 따라 그 분류도 다양하다. 분석 결과, 9개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근거이론이 13.6%(10편)으로 약간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현상학(10.9%, 8편), 사례연구(10.9%, 8편), 문화기술연구(8.2%, 6편), FGI(4.1%, 3편), 질적 다방법(2.7%, 2편)이었다. 내용분석, 담화분석, 사고구술법은 각각 1.3%(1편)이었다. ‘연구방법’부분과 본문에서도 구체적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질적 연구’로 표기한 논문은 연구방법을 ‘일반적 질적 연구(non-specified qualitative method)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특정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대신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라고 표기하는 경향이였다. 이들 ‘일반적 질적

연구’는 26.0%(19편)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무(無)언급’논문이 21.9%(16편)이나 되었다.

시기적 특색을 검토해 보면, 90년대 후반 질적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방법에서 단순히 ‘질적 연구’라고 표기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대에도 여전히 연구방법을 ‘질적 연구’로 망라적으로 표기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2000년대는 문화기술연구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으며(8.2%, 6편), 2010년대에는 근거이론(8.2%, 6편), 사례연구(5.4%, 4편)가 선호되고 있다. 그 외에 담화분석, 사고구술법, 질적 다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등장하고 있다.

## 7. 연구참여자

누구를 연구참여자로, 누구의 경험을 탐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主)참여자(主)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사서가 41.0%(30편)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종사자(13.6%, 10편), 대학생(10.9%, 8편), 취약·소외집단(9.5%, 7편), 도서관이용자(8.2%, 6편), 여성(8.2%, 6편) 순이었다. 그 외에 소수 집단으로 청소년(4.1%, 3편), 노인(2.7%, 2편), 기타 일반인(1.3%, 1편)이었다.

전문직 집단에는 의사, 독서치료사, 교수자, 연구자, 영화창작자, 신문기자, 공공기관 행정감시자 등이 포함되었다. 취약·소외집단에는 지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정보소외계층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 집단에는 배우자 사별 중년여성, 결혼이주민, 임신부, 중년주부, 기러기 엄마를 포함하였다.

시기적 특색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로서 사서 집단은 질적 연구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으며(4.1%, 3편), 2000년대에도 우세하였고(12.3%, 9편), 2010년대에는 2배로 증가하는 양상이다(24.6%, 18편). 이러한 양상은 주제 측면에서 2010년대 사서업무 주제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있다고 파악된다. 2000년대에는 취약·소외집단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나(6.8%, 5편), 2010년대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7%, 2편).

참여자로서 사서 집단, 전문직 집단, 대학생 집단은 종래의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자주 논의하였던 대상들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특성을 살려 연구논의에서 거의 소외되었거나 배제되어왔던 취약·소외집단과 여성집단으로 연구대상(참여자)을 확대한 것은 문헌정보학의 외연과 심연을 넓히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사서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도서관과 사서직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익한 현상이다.

## 8.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면담, 심층면담, FGI, 사고구술, 내부자료로 구분하였다. 문헌정보학에서는 면담자료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자료를 병행 수집하고 있었다. 다양한 자료에는 설문지와 내부자료를 들 수 있다. 참여자들은 설문지를 인적 데이터나 탐구현상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내부자료로는 통계자료, 조직내부의 현황자료, 참여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 개인자료등이 포함된다.

가장 선호하는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20.5%, 15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면담(13.6%, 10편), 심층면담과 내부자료(9.5%, 7편), 심층면담, 내부자료와 관찰(10.9%, 8편), 심층면담과 관찰(8.2%, 6편)이었다. 심층면담과 설문지(4.1%, 3편), 심층면담, 내부자료, 설문지와 관찰(4.1%, 3편), 내부자료(4.1%, 3편), FGI(4.1%, 3편)이었다. 질적 연구는 대체적으로 면담자료의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료수집이 다양한 것은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9. 표집방법, 표집크기, 데이터 포화, 연구동의

질적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연구진행 단계별로 참여자 선정을 위한 다양한 표집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선정을 위한 일차적 표집방법만 집계하였다. 의도적(목적적) 표집이 16.4%(12편)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눈덩이표집 (9.5%, 7편), 이론적 표집(2.7%, 2편), 다단계 층화(2편)이다. 2차 표집으로 병행된 표집방법으로는 이론적 표집이 4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최대변이 2편, 의도적 표집 2편 등이었다. 10편의 논문이 2개 이상의 표집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표집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52.0%(38편)나 되었다.

표집의 크기는 6-10명이 21.9%(16편)로 가장 많았다. 16-20명(16.4%, 12명), 2-5명(10.9%, 8명), 11-15명(9.5%, 7편), 21-25명(6.8%, 5편), 1명(4.1%, 3편)이었다. 기타 영역에는 26명-234명으로 13.6%(10편)이다. 최소 1명에서 최대 234명이었다. 표집크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15.0%(11편)나 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이 끝나는 시점은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으로 더 이상 자료에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데이터 포화'를 언급한 논문은 21.9%(16편)이었다. 76.7%(56편)가 데이터 포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공식적인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2.3%(9편)이었다. 그 외에 간략형식의 참여자 동의(구두동의(1편), 사전동의(1편), 녹음(녹취) 동의(8편), 서면 동의(5편), 자발 동의(1편))

를 제시한 경우는 21.9%(16편)이었다. 65.2%(47편)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 동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10.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시 SW 이용

수집한 자료에서 탐구현상과 관련되어 의미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이 자료의 분석과정이다.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연구 등은 상당히 체계적인 자료분석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분석방법은 34.2%(25편)가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27.3%(20편)의 논문이 자료분석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분석(10.9%, 8편), 현상학(5.4%, 4편), 코딩(5.4%, 4편), 문화기술연구(4.1%, 3편)이었다. FGI, sense-making method(2.7%, 2편)등 이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12.3%(9편)이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87.6%(64편)이었다.

#### 11.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53.4%(39편)의 논문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46.5%(34편)만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언급하였다. 언급한 34편의 논문은 평균 1.78개의 검증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이 19.1%(14편)로 우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검증법이 17.8%(13편)이었다. 그 외에 코더 간 일치도검사(12.3%, 9편), 데이터 포화(10.9%, 8편), 삼각검증법(10.9%, 8편), 판단중지(2.7%, 2편) 등 이었다. 시기적으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언급하지 않은 논문이 2000년대에는 42.8%(12편)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역으로 증가하여 56.0%(23편)나 되었다.

#### 12. 주제별 현황

질적 연구주제에 따라 선호하는 연구방법, 연구목적, 연구참여자에 차이가 있었다. ‘정보행태’(n=29)주제의 연구목적은 ‘경험 이해’(27.5%, 8편)가 많았으며, ‘사서업무’ 주제(n=15)는 ‘현황 개선’(60%, 9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 ‘정보행태’는 ‘일반 질적 연구(non-specified qualitative method)’가 27.5%(8편)이었고, 근거이론이 24.1%(7편)이었다. ‘사서업무’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무언급’연구가 40%(6편)이며, ‘일반 질적 연구’가 33.3%(5편)이고, 사례연구가 20%(3편)이었다. 정보행태 주제의 주요 연구참여자

는 대학생(27.5%, 8편), 전문직 종사자(24.1%, 7편)이었고, 사서업무 주제의 주참여자는 100% 사서(교사)이다.

상위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행태’, ‘사서업무’, ‘독서치료와 교육’ 주제별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참여자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행태’ 주제는 정보탐색, 정보추구, 정보소외,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행태 주제(n=29)의 연구목적은 ‘경험 이해’가 매우 우세하며(27.5%, 20편), 그 다음으로는 ‘현황 개선’ (17.2%, 5편), ‘이론 개발’(13.7%, 4편)이었다. 연구방법은 구체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질적 연구’로 표기한 ‘일반 질적 연구’가 27.5%(8편)이고, 근거이론이 24.1%(7편)이었다.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무언급’연구가 17.2%(5편), 사례연구가 13.7%(4편), 문화기술연구가 6.8%(2편)이며, 담화분석, 사고구술법, 내용분석이 각 1편씩이다. 주참여자는 대학생(27.5%, 8편), 전문직(24.1%, 7편) 순이었다.

‘사서업무’ 주제(n=15)는 수서업무, 주제전문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지적장애인 서비스, 장서개발, 업무변화등 사서의 업무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주제이다. 연구목적은 ‘현황 개선’이 60%(9편)으로 가장 우세하다. 그 다음으로는 ‘경험 이해’ 40%(6편)이며,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목적은 한 편도 없었다.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무언급’연구가 40%(6편)이며, ‘질적 연구’로 표기한 ‘일반 질적 연구’가 33.3%(5편)이고, 사례연구가 20%(3편)이다. 주 참여자는 100% 사서(교사)이다. ‘독서치료와 독서교육’ 주제(n=10)는 연구목적의 80%(8편)가 ‘경험 이해’이며, ‘현황 개선’과 ‘이론 개발’ 목적이 각각 1편씩이다.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무언급’ 연구가 30%(3편)이다, 근거이론, 현상학, 사례연구가 각각 20%(2편)이며, FGI는 10%(1편)이다. 주참여자는 전문직 종사자(독서치료사)가 30%(3편)이며, 사서, 도서관이용자, 여성, 기타이다.

## VI. 논의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문헌정보학분야의 질적 연구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였다. “심층면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는 입장에서 부터 보다 과학적인 질적 연구로 접근해 보려는 입장까지 연구자에 따라 질적 연구에 대한 정의, 인식, 적용 수준이 다양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논문은 두개의 유형으로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였다. 그 하나는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이나 절차를 덜 중요시 하는 ‘느슨한 질적 연구’ 유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연구 절차를 준수하는 ‘과학적 질적 연구’유형이다. 이는 다시, ‘일반적 질적 연구’를 선호하는 유형, ‘문화기술연구’를 선호하는 유형, ‘과학적 질적 연구’를 지향하고 선호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느슨한 질적 연구’ 유형은 질적 연구의 전반적 특성,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이나 절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학적 질적 연구’ 지향 유형이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일련의 질적 연구과정과 절차를 단순한 연구기법(technique)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대다수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자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질적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는 것”(김갑선 2015, 267)이며, 아울러 자신의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적 신념과 입장을 성찰하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의 특색은 첫째, 다양한 자료의 수집 경향, 둘째, 기존 양적 연구에서 소외 내지는 배제되었던 연구대상으로의 관심 확대, 셋째, 실무에 기반한 ‘현황 개선’에 관한 연구목적이 비교적 중요시 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 넷째, 자료분석시 질적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의 취약점을 근거로 질적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자의 인식 고양, 엄격한 연구 방법(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연구윤리, 타당성과 신뢰성)의 적용이 요구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교과목 설치, 심사자와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 지침과 표준, 심사기준의 제작이 필요하다.

### 1. 질적 연구자로서 인식 고양

본 연구 결과, 질적 연구자로서 질적 연구를 생산한다는 인식 내지는 차별성이 미흡하였다. 논문 제목에서 ‘질적 연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은 47.2%(34편)이나 되고, ‘질적 연구’ 관련 주요어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은 58.3%(42편)이나 되었다. ‘질적 연구’의 명시 여부는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자 인식 뿐 아니라 생산된 질적 연구논문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적 연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다양한 분야의 질적 연구자들도 공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연구의 보편화로 인하여 이제는 질적 연구가 특별한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질적 연구에 가해지는 ‘주관적 연구’라는 오해와 편견을 모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셋째, 연구자가 자신이 생산한 질적 연구물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자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강건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생생한 경험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연구에 대한 사명감, 현상의 본질을 찾아내려고 하는 열렬한 탐구심, 연구자로서 개인의 신념, 선입관, 편견 등에 관한 부단한 자기성찰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 좋은 질적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 2. 엄격한 질적 연구방법(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연구윤리, 타당성과 신뢰성)의 적용

본 연구 결과, 특정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라고 표기한 ‘일반 질적 연구’논문이 26.0%(19편)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언급하지 않는 ‘무언급’논문이 21.9%(16편)이나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의와 달리 엄격한 의미에서 면담이나 관찰 등의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질적 연구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연구방법, 연구과정을 제공해주는 질적 방법 교재들이 많다. 합당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정하는 방법은 특정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된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을 통해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 선호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회학에서 출발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해 실제로 수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도출된 근거이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후기 실증주의의 연구패러다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질적 연구방법보다 실증주의에 가장 가까운 질적 연구 방법이다. 실용주의적 관점을 갖는 문헌정보학에서 비교적 가장 선호하는 연구 접근이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인식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에서 출발하였다. 인간경험의 기술(記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본질,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강점이 있다. 문화기술연구(ethnography)는 인류학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의 문화적 행동, 특정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기술(記述)적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반 질적 연구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은 학술지 지면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연구자가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 누락했을 수도 있다. 혹은 연구자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 연구 진행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과정이 엄격하지 못한 경향이 빈번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성급하게 질적 연구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참여자 표집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51.3%(37편)나 되었다. ‘데이터 포화’는 표집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자료수집의 종료 시점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데이터 포화’를 언급하지 않은 논문이 77.7%(56편)이나 되었다. 참여자 보호를 위한 ‘연구동의’에 대해 언급이 없는 논문이 65.2%(47편)나 되었다.

자료수집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면담자료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집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로 인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원화 되는 경향이 빈번

하다는 것이다. 심층면담자료의 수집은 일시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며,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설문조사도 아니다. 질적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순환적, 나선형적 과정이어야 한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참여자 1명 정도와 면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료수집이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일괄적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추정되는 예를 들자면, “9일 동안 154명을 면담하고”, “12일 동안 11명을 면담”하였으며, “7일 동안 7명을 60-90분 면담하였다” 이다.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이 순환적, 나선형적 과정이라는 것은 수집과 분석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의 면담자료가 수집되면 그 자료에 대한 반복청취와 더불어 녹음자료를 필사하여 녹취자료를 만든다. 이를 정독하여 충분한 분석을 한 이후에 다음 면담에서 수집할 자료를 위한 추가질문을 준비하고, 보완할 점, 재확인 할 점 등 보완된 면담지침을 가지고 다음 면담을 하거나, 새로운 참여자의 조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집방법과 표집크기도 정해지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나 활용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준비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자료의 분석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논문이 27.7%(20편)나 되었다. 또한, 연구방법과 분석방법간의 불일치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방법은 ‘문화기술연구’이며, 분석방법은 ‘근거이론’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질적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질적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양적 연구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질적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을 위한 핵심 도구”(Denzin & Lincoln, 2005, 578) 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민감성을 중요한 분석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질’과 관계되는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언급이 없는 논문이 52.7%(38편)나 되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그 연구가 어떠한 세계관과 인식론에 근거하여 연구가 설계되었는지, 이에 따라 연구자료는 어떻게 수집 및 분석되어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있는지”(유기웅 외 2012, 312) 연구의 전체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단계별 다양한 전략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전략들이 질적 연구를 위한 형식적 테크닉이나 연구의 장식품쯤으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질적 연구방법의 교과목 설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는 연구자의 질적 연구에 관한 인식의 부족,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를 체계적으로 교수할 교수자도 부족하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에 관한 관심과 학습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에 관한 관심과 학습요구를 연구자의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현재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방법의 교과과정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수자들이 고심해야 할 단계이다.

### 4.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 지침과 심사 기준 제작

문헌정보학분야의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 논문심사는 아마도 양적 연구의 심사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경향일 것이다. 심사자와 연구자의 질적 연구 수행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문헌정보학 질적 연구 지침과 표준, 심사 기준 제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사 및 연구 지원 도구들은 질적 연구자를 위한 연구 가이드로 초보자에게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수행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 평가 지원 도구를 만든다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성장하는 주제인 질적 연구의 연구 품질을 유지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논문의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을 대표하는 학술지 4종의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최대 47년간 발표된 질적 연구에 관한 73편(1.4%)의 논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에서 질적 연구는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논문에 관한 계량적 분석과 추이를 통해 발전책을 모색했다는데 연구의의가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더 좋은 질적 연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철학적 이론적 전통을 이해하고, 연구자 자신의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적 신념과 입장을 성찰하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느슨한 질적 연구’유형은 질적 연구의 전반적 특성과 연구방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학적 질적 연구’지향

유형은 질적 연구방법과 절차에 경도되어 ‘질적 연구 테크니션’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의 현 단계는 생산되는 질적 연구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연구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하는 시기이다. 탐구현상의 심층적 경험 이해를 근간으로 정보와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개발에 일조하는 것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이론 개발로 그 연구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갑선. 2015. 문헌정보학의 질적 연구방법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55-275.
- 김정근. 1998.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김정근, 김순화. 1997. 우리나라 시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적현황에 대한 질적 분석: 백두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6: 333-363.
- 김정근, 이용재. 1996.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4: 107-161.
- 김정근, 장덕현. 199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 3-73.
- 김정근, 장덕현.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55-75.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 65-92.
- 유기웅 외.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명희. 2005. 문헌정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177-201.
- 이수상. 1994. 한국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49(3): 63-84.
- 이소연. 2000. 대학도서관 조직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새천년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123-142.
- 이제환, 윤유라. 2005.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81-202.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호신. 2015.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이야기: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149-172.
- 장덕현. 2001.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 269-288.
- 장덕현. 2002. 정보장애 연구에 있어서 문화기술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1-18.
- 정진수. 2003. 풍부한 정보 환경에서 정보와 함께 하는 학습: 인지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4호): 135-158.
- Bamkin, Marianne, Sally Maynard, and Anne Goulding. 2016. "Grounded Theory and Ethnography Combined: A Methodology to Study Children's Interactions on Children's Mobile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2(2): 214-231.
- Budd, John M. 2005. "Phenomenology and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1): 44-59.
- Cibangu, Sylvain K. and Mark Hepworth. 2016. "The Uses of Phenomenology and Phenomenography: A Critical Review."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8(2): 148-160.
- Cook, Douglas, and Lesley Farmer. ed. 2011. *Using Qualitative Methods in Action Research: How Librarians Can Get to the Why of Data*.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hicago, IL.
- Eisenhart, Margaret and Susan Jurow. 2011.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in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ed. by Denzin, Norman K. Yvonna S. Lincoln. Los Angeles: Sage.
- Forster, Marc. 2015. "Phenomenography: A Methodology for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8(4): 353-362.
- Frohmann, Bernd. 1994. "Discourse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2): 119-138.
- Gorman, G.E., and Peter Clayton. ed. 2005.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 Practical Handbook*. 2nd ed. Facet Publishing, London.
- Lincoln, Yvonna S. and Egon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
- Seldén, Lars. 2005. "On Grounded Theory: With Some Malice." *Journal of Documentation*, 61(1): 114-129.

- Talja, Sanna. 1999. "Analyzing Qualitative Interview Data: The Discourse Analytic Method."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4): 459-477.
- Tan, Jin. 2010. "Grounded Theory in Practice: Issues and Discussion for New Qualitative Researchers." *Journal of Documentation*, 66(1): 93-112.
- Trace, Ciaran B. 2016. "Ethnomethodology: Foundational Insights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Documents in Everyday Life." *Journal of Documentation*, 72(1): 47-64.
- Westbrook, Lynn. 1994.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 Review of Major Stages,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Quality Control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3): 241-25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2001. "Discourse 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2): 269-288.
- Chang Durk-Hyun. 2002. "Employing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Barriers Researc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55-75.
- Chung, Jin Soo. 2003. "Learning with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Rich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4): 135-158.
- Kim, Jung-Gun. 1998. *What is Ethnography in Academic Research*. Seoul: Hanulplus.
- Kim, Jung-Gun, Chang Durk-Hyun. 1994.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of Librarians in Their Everyday Lives in Pusan- Kyongnam Area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 3-73.
- Kim, Jung-Gun, Chang Durk-Hyun. 1999.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Everyday Life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urrent Research Tren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 Kim, Jung-Gun, Lee Young Jae. 1996.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and Ethnographic Metho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Society*, 24: 107-161.
- Kim, Jung-Gun. Kim Soon-hwa. 1996. "A Portrai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s in Municipal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Paek-tu."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 333-363.
- Kim, Kapseon. 2015. "Teach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255-275.
- Lee, Ho-Sin. 2015.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149-172.
- Lee, Jae-Whaon, Lee Yeon-Ok, Chang Durk-Hyun. 2004. "Methodology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of Minority Group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2): 55-75.
- Lee, Jae-Whaon, Youn You-Ra. 2005. "Life and Information Poverty of Foreign Labor 'H'."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181-202.
- Lee, Myeong Hee. 2005. "Some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177-201.
- Lee, So-Yeon. 2000. "Qualitative Study on Organizational Culture of an Academic Library: A Case Study of New Millennium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4): 123-142.
- Lee, Soo-Sang. 1994. "A Discussion on Indegenous Sett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Doseogwan*, 49(3): 63-84.
- Ryu, Ki-ung. et al.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kyoungsa.
- Seol, Moon-Won, Cha Mikyeong. 1999. "Some implication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th Anniversary of Founding Depar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EWU. 65-92.